

##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충남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조00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2015년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향후 관련 세계문화유산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함임

### CONTENTS

1. 문제제기
2.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과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평가 현황
3.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언론에 비추어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향
4. 세계문화유산 등재 충남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 사항
5. 결론 및 정책제언

### [요약]

- “백제역사 유적지구” 등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과 충남 일원의 백제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이해를 통해 그동안 충남의 백제역사 살리기를 위한 노력과 향후 관련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과 지역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를 추진할 핵심 역량을 가진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 현재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경우 시각적인 관광자원 보다는 관련 유적지(터)를 중심으로 한 이전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테마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 백제 660년 역사 중 충남일원의 150여년의 역사에 대한 가치 정립과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가꾸어 온 역사에 대한 유네스코의 평가가 다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부여가 필요함

● 이번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일반 국민들이 관련 기준 및 관련 지원 혜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라써 그 평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준과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통해 다시한번 충남의 백제 문화에 대한 정립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현재의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관광자원 및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많은 유적지가 터·이전 건물지라는 시각적인 측면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으로 관련 지역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을 경우 현지에서 접하는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약화될 수 있음.

- 터 : 공주 왕궁지, 부여 관북리유적

- 건물지 : 공주 왕궁부속시설지, 부여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사지, 익산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 무덤 :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능산리고분군

- 현존 문화재 :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산성의 경우도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본 틀은 조선시대 축조물이며, 일부 백제시대의 건축술이 남아 있음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제시도 필요한 부분이며, 익산 왕궁리 5층 석탑도 백제 양식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그 건립시기는 백제 이후를 제작 시기로 보고 있는 등 관련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과 정비 부분은 우리가 백제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이런 시각적 볼거리 부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향후 백제역사 문화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생각해 보고자 함.

● 백제의 660년 역사 중 충남지역에 대한 역사를 통해 향후 한성 백제 등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 속 백제 깨우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백제문화 유산 “ 등재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을 통해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02

### ▶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과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평가 현황

#### 1.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이해

##### ● 세계유산의 정의

-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채택과 발효: 1972.11.23. 채택, 1975.12.17. 발효
- 가입국: 현재 191개국 가입, 한국은 1988.9월 가입, 1988.12월 발효
-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는 2년마다,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

##### ● 등재 대상

-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유산이 대상이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

##### ● 등재 기준

###### ○ 공통 기준

-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유산으로서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입증하는 유산

###### ○ 문화유산

- (i) 인간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걸작품
- (ii) 장기간 또는 어떤 문화지역 내에서의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
-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와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입증하는 탁월한 사례
- (v)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
- (vi) 살아있는 전통, 사상 등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

###### ○ 자연유산

- (vii)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 (viii)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ix)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x)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 서식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및 사례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수 오페라 하우스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서울 종묘
	5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일 것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자연유산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 및 화산섬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제주 용암동굴 및 화산섬
	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중국 쓰촨 자이언트 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법적, 행정적 보호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자료 : <http://www.unesco.or.kr/heritage/index.asp>

◎ **등재 절차 (등재 신청 접수 이후 약 1년 6개월 소요)**

- 잠정목록 등재(세계유산 등재신청 최소 1년 전)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제출(매년 2.1.까지)



- 자문기구(문화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평가(등재 신청서 제출 연도 3월~이듬해 3월)



- 자문기구의 최종 권고(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 결정(이듬해 4~5월)



- 세계유산위원회(21개 위원국)에서 최종 결정(이듬해 6~7월)

◎ **세계유산 등재 현황 (2015. 6월 현재)**

- 총 1,007건(문화유산 779건, 자연유산 197건, 복합유산 31건)
  - 유산 등재국: 161개국(이탈리아 50건, 중국 47건, 일본 18건 등)

◎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현황 (2015. 6월 현재)**

- 총 11건(문화유산 10건, 자연유산 1건)
  - 문화유산(10): 석굴암 및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1995), 창덕궁, 수원 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 자연유산(1):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2.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평가 결과**

◎ **유산명: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

- 대상 지역(8개소)

- 공주(2개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 부여(4개소):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 익산(2개소):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 백제역사 유적지구 등재기준

-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며, 그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임.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백제역사유적지구

의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사라져 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임.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5층 석탑



무령왕릉 내부



능산리 고분군



나성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경과

-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잠정목록 등재: 2010. 1월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립: 2012. 5월
- 등재신청서 작성: 2012. 7월~2014. 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확정: 2013. 9월
-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2014. 1월
- ICOMOS 현지 실사: 2014. 9월
- ICOMOS 추가자료 요청 및 답변: 2014. 9월~2015. 4월
- ICOMOS 평가보고서 당사국 송부(등재권고): 2015. 5. 4.
- 세계유산 등재: 2015. 7. 4.(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독일 본)

● 평가 개요

○ 등재기준: (ii), (iii) 충족

- 당사국이 제시한 등재기준 (ii), (iii), (iv) 중 (ii), (iii) 충족

**\* 등재기준(ii):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해 백제가 이룩한 건축 기술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줌

**\* 등재기준(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수도 입지 선정, 불교 사찰,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역사, 내세관과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를 보여주는 유산이자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

○ 완전성: 모든 등재신청 대상이 완전성 충족

○ 진정성: 모든 등재신청 대상이 진정성 충족

○ 유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유산에 가장 주된 위협요소는 관광 압력과 산불 위험임

○ 보호, 보존 및 관리

- 유산지역 및 완충지역 설정은 적절함
- 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적절함
- 유산 보존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긴급히 요구되는 조치 또한 없음
- 연속유산 전반의 관리시스템은 적절하며, 당사국에서 개괄적인 관광 관리 계획 및 각 유산에 대한 방문객 관리계획을 개발 중임
- 유산 모니터링 체계는 적절함

◎ 추가 권고사항

- 당사국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유산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키기 위한 개괄적인 관광 관리 계획과 각 유산에 대한 방문객 관리 계획을 완성할 것.
- 당사국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고분 내 벽화 상태와 내부환경 변화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순간



정립사지 10만번째 방문 기념행사

# 03

## ▶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언론에 비추어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향

### 1. 문화재청 주관 백제유적지 관련 추진 사항

####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 개최 (2015년 9월 22일)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이 2015년 9월 22일 오후 4시 20분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에서 개최됨.

○ 문화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주민, 관람객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전국민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임.

○ 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등재 선포식은 상징물 제막,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 등재 선포,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전북도립국악원, KBS 어린이 합창단 등의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짐.

○ 선포식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공주·부여·익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전달함.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거듭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지를 밝힐 계획임.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대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한·중·일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독일 빈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 이번 등재 선포식은 백제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다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임을 밝힘.

#### ◎ 문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다 (2015년 10월 29일~30일)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015년 29일부터 30일까지 문화재청 정책고객 30명을 초청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대를 탐방하는 문화유산 현장 답사를 진행함.

문화재청 정책고객은 문화유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국민들

로 구성되며, 평소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건설적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 올해 찾아가는 문화재 현장은 백제의 역사, 종교, 건축, 예술미를 잘 보여주며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이다. 정책고객들은 이틀에 걸쳐 ▲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 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 ▲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의 독창적인 문화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탐방하며 국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개진할 예정임.

○ 정책고객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평소 온·오프라인을 통해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며 문화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려주는 정책고객의 변함없는 사랑에 보답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만남이 될 것임.

○ 문화재청은 정책고객과 문화재청 소식지인 월간 ‘문화재사랑’ 애독자를 대상으로 매년 번갈아 문화유산 탐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과 소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임.



문화재청 문화유산 탐방 사례



문화재청 시행 문화 답사 프로그램

## 2.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추진 사항

### ◎ 충청남도 및 시·군 주관 추진 사항

#### ○ 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 (2015년 10월 2일, 부여 정림사지서 고유제 거행)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하늘 및 조상에 고하는 제(祭)인 고유제(告由祭)가 2015년 10월 2일 부여 정림사지에서 거행됨.

충청남도과 전북도, 문화재청, 공주시·익산시 등 6개 기관이 주최하고, 도와 부여군이 주관한 고유제는 ‘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안희정 지사와 부여군수 및

공주부시장·익산시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이코모스 관계자, 학계,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고유제는 안 지사가 초헌관을 맡았으며, 씻김무와 제물 진설, 참례자 헌화 등
- 고유제에서 진설된 제품은 도내 15개 시·군과 전북 익산 지역 특산물



안희정 지사 등재기념 환영사



고유제 중 초헌례 모습

- 고유제 대미는 충남국악단의 백제 오악기연주와 퓨전 국악공연으로 장식
- 앞선 1일 국립공주박물관 대강당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 백제 세계유산 담긴 기념주화 탄생 (한국은행 10월 26일)

10월 26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한국은행 보관에서 이창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 기념주화 사전 실물공개 행사를 가짐.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 기념주화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발행됐으며, 이번에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경주역사유적지구가 담김.

백제역사유적지구 기념주화는 앞면에 백제금동대향로로 상부를 표현하고, 뒤로 공주공산성 전경이 배치됨. 뒷면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이 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호, 유리구슬 등이 삽입됨.



한국은행 발행 기념주화



백제문화제 중부권 최대 불꽃 축제

○ 제61회 백제문화제 (2015년 9월 26일 ~ 10월 4일까지(9일간))

‘백제, 다시 태어나다’의 주제로 2015년 9월 26일 깊어가는 가을 저녁, 공산성과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중부권 최대 불꽃 축제의 개막을 시작으로 9일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지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전부터 백제 및 충남과 관련된 가장 큰 행사로써 우리지역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한 상태임.

향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발전과 백제문화제는 별도의 운영 문제가 아닌 상호 발전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역할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백제문화제 홍보 슬로건

## 1. 현재 백제문화제와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과제

## ◎ 통합관리기관의 중요성과 향후 1,000년 보존 계획 필요

## ○ 백제문화제로 되살아나는 세계유산 (최종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

## 통합관리사업단과 공동 관광홍보 프로그램

## - ‘찾아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문화제’ 구상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백제문화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백제문화제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고,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백제문화제는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주제로, ‘백제 다시 태어나다’를 부제로 설정하여 공주 금강산관광공원에서 공산성을 바라보며 개막식을 펼치고, 부여 정림사지 광장에서 정림사지를 바라보며 폐막식을 개최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충청도, 공주시, 부여군은 백제문화제가 역사문화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연과 참여, 소통과 화합, 협력과 융화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의 후예와 관광객들이 오감(五感)으로 체험할 수 있게 기획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주관했던 개·폐막식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공주시와 부여군으로 이관했고, 시·군 참여 프로그램의 지원, 후원금품 모금, 수익사업 발굴, 대외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음.

추진위원회는 올해 백제문화제의 공익성 추구하고 투명성 제고, 경제성 확보, 토속성 계승, 창의성 활용 등 새로운 경영방침을 세움. 또한 백제문화제의 핵심요소를 백제인의 진취성, 백제국의 개방성, 백제문화의 창조성으로 인식함. 아울러 백제역사유적지구통합관리사업단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증대하고, 표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홍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백제문화제가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청도와 각 시·군, 산·학연단(産學研團), 지역주민, 다문화가족, 글로벌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다함께 공감, 공존, 공영, 공영할 수 있도록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백제문화제 통합 관광홍보 전략 수립과 백제관광 연계망을 구축해 운영해야 함.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의 권고에 따라 문화재청과 해당 자치단체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광물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백제문화제를 근간으로 문화재청과 자치단체, 백제의 후예들,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유산 광물관리 전략과 방문객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백제역사유적지구통합관리사업단이 관광홍보 연계망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을 공동 또는 협력 추진할 것을 제안함. 우선 두 프로그램을 운용할 전시·홍보·교육·체험 및 이벤트용 트레일러와 버스를 제작해 충남·전북 도내와 전국의 명품 축제장을 찾아가는 방안임.

특히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인문학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을 감안시 찾아가는 백제 알리기는 가장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충청남도의 지역 문화 해설사, 충남학 강사 등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으로 활용이 많은 시간 단축을 통해 전문 배출 및 방문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부여를 역사·문화 중심 관광도시로 (안희정 지사 2015년 9월 17일 부여군 방문)

충청남도가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중심 관광도시’로 부여군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도는 우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광객 맞이’ 30개 사업을 추진함.

구체적인 사업은 교통시설 및 안내·해설 체계 정비, 문화재 및 화장실 정비, 쓰레기수거 등으로 총 투입 사업비는 88억원(공주 지역 포함)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권고한 ‘통합 관광 관리계획 및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가칭)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치함.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부여군·공주시·익산시가 장기간에 걸쳐 발굴·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해온 점을 감안, 일단 지역센터를 설치해 협업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복안임.

충청남도는 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도 펼칠 예정으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준비와 세부 시행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함.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조 25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부여·공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임.

○ 세계문화유산 백제유적지구 송산리 고분 등 훼손 심각

(2015년 9월 17일, 국감브리핑 교문위 정진후 의원 지적, 문화재청 “집중 관리 중”)

우리나라 12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화재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덤 곳곳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옴.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내부 바닥재와 벽재 및 마감재가 금이 갔으며, 강도가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임.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송산리 고분군을 이루는 무령왕릉, 송산리 5호분, 송산리 6호분 내부가 금이 가고 강도가 약해진 ‘열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등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문화재청은 이 같은 지적에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관리 중이라고 밝힘.

## 2. 향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 사항

### ◎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자세

○ 문화(文化)의 정확한 의미 전달은 영어의 culture나 독일어의 Kultura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음. 문화는 라틴어의 cultura, colere에서 비롯된 말로 농경사회의 생산양식을 의미하는 ‘경작하다’, ‘기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문화는 시대의 흐름 속에 물리적 자연의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같은 내부의 자원을 내포하는 의미로도 쓰였음.**

○ **문화는 한 인간 집단의 역사적 산물이다.** 아울러 인간들의 생활양식이자 삶의 지혜다. 따라서 문화는 후천적 습득(習得)의 개념을 더 크게 지니고 있음. 이는 문화의 사회 유전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역사성과 초개인성을 지니게 함. 따라서 **문화는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전승(傳承)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2005).

○ 유네스코는 유산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선대로부터 습득한 모든 것이며, **그중 후대에게도 지속적으로 전승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함.**

### ◎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1세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음. 정영근·장민수(2007)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며, 인간이 모든 문제해결의 중심이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고 규정함. 김성진 외(2006)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녔다**” 과 정의하고 있음.

**백제역사유적지의 경우 향후 ‘불거리 측면에 대한 많은 요구시 이를 어떻게 충족해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의 방문 행위는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원상태로의 복구 또는 회복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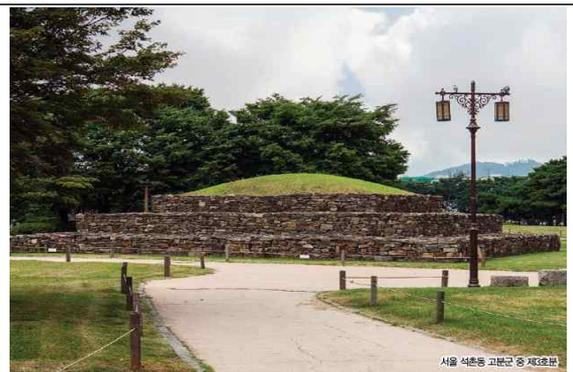
따라서 한번 파괴된 사회·문화적 자원은 원상태로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김대관, 2001). 이 같은 연유로 김재민(1999)은 “환경을 관광의 대상이자 자

원으로 본다면, 환경의 훼손은 결국 관광자원의 질적 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일” 이라고 보았음.

○ 또한 이번 백제유적지구는 660년이 넘는 백제 역사 중 한 부분으로 향후 새로운 백제의 문화자원이 발굴 또는 발전되고 연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임.



한성백제 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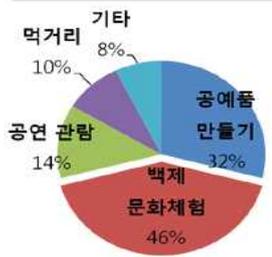


서울 석촌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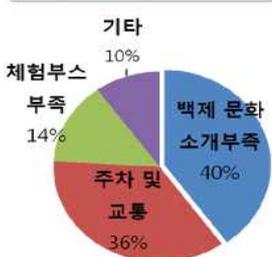
○ 관광이 미래사회의 주요 트렌드를 잘 담아내는 분야라는 학자들의 평가도 따름. 이연택(1993)은 “관광은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세계경제에서 가장 급속하고, 파급력 있게 발전해 온 현상 중 하나이며, 관광은 다른 어떤 사회 현상보다도 ‘탈산업사회’의 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주요 경향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이라고 정의 내림. 김향자(2006)는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해 “관광은 최대 단일 산업이자 성장 동력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관광을 통해 해외에 자국 문화를 알리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무궁무진한 산업” 이라고 규정했음.

○ 우리는 다년간의 백제문화제 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경험 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이 세계문화유산 관리 항목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백제문화제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백제문화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설문조사 참여 : 관광객 50명  
(출처 : 충청남도 도립대학 이창훈님)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광객 모니터링 사례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자원보존, 경제발전 및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미래 관광발전의 기회를 보호, 강화하면서 관광객과 관광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다(Inskeep, 1991). 더불어 ‘문화자원에 대한 보호, 관광객의 윤리의식이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관광으로도 정의’ 할 수 있음 (민창기, 2009).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 해설사 활동 사례



왕궁리 유적 전시관

○ WTO(United Nations, 2007)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환경자원의 이용 최적화를 통해 필수적 생태과정 유지와, 자연유산,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일조해야 하며, 둘째, 관광지역 주민들의 터전과 삶의 양식에 관한 유산, 전통적 가치 등 사회문화적 진정성(authenticity)을 존중함으로써 각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셋째, 각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포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수입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장기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 운영을 보장해야 함.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 기회의 공평한 제공과 빈곤 완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는 등 3가지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함.

○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단점도 긴 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측면 중 한 시점이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 ‘백제 문화와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미륵사지 석탑 복구실 전경



미륵사지 석탑 복구 과정

## 05 ▶ 결론 및 정책제언

●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 년간 존속한 한반도의 한 국가임.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의 도읍들과 연관된 백제 후기 (475~660)의 유산으로 웅진 왕도 관련 유적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사비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사비시대의 복도(復都) 관련 유적인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의 유적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임. 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임.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불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이를 다시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하는 유산임.

상기와 같은 유네스코 등록 취지를 명문화 하고, 그 시작 시점에서 앞으로 1,000년 관리/복원/관광에 대한 큰 방향성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며, “백제라는 역사를 우리가 가까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세계문화유산으로써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의 역할과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참여 및 지역의 다른 문화자원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관할 통합 기관의 발족이 필요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번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제언으로 첫째, 기존 국내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들과의 통합 관리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둘째, 현재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많은 유휴 부지에 백제 역사를 다시 깨울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도출, 셋째, 백제역사유적지구만의 유네스코의 평가 중 글로벌 백제의 장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

- 첫째, 국내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들과의 통합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 등을 통한 문화재 발굴/보존을 위한 지원과 함께 테마별 관광주관 행사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제안함.

- 둘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객관적 정보 제공과 그 보존·보호를 위한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함.

- 셋째, 백제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컨벤션 장소가 관련 지역에 마련되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제안함.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속가능한 문화자원으로 발전을 위해 현재 관련 문화재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의 배분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의 창구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함.

## ◆ 참고 자료 ◆

- 김대관, 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연구,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 김성진 외, 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2005, 역사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이희원, 200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전명숙, 2005, 한국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2), 75-80.
- 전명숙, 2006,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6(1), 93-101.
- 정영근 외, 2007,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 한국동서경제연구 19(1), 143-164.
- 김형우, 2014,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13.
- 최종호, 2015, 백제문화제로 되살아나는 세계유산, 충남넷(도정신문).
- 문화재청/외교부 보도자료,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 개최,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5, 문화재 현장에서 국민 생생한 의견을 듣다.

### [인터넷 자료]

충청남도 관련 : 충남넷 <http://chungnam.net:8100/media>